

## 13&14. 중 · 근세 동아시아의 교류② 임진왜란과 조선통신사

---

현대 동아시아의 형성(2020s)  
독습용 보조교재 & 과제

## 0. 참고연표 (종전과 동일)

	중국	한반도	일본	중국사, 한국사, 일본사
14C	원(元)	고려(高麗)	가마쿠라 시대	가마쿠라 막부 설립(1333), (일본)남북조시대 시작(1336), 무로마치 막부 수립(1338)
15C	명(明)		막부조 시대	영 건국(1368), 요류릉 보반사건(1380) 조선 건국, (일본)남북조시대 종결(1392), 남북 보반사건(1393), 정난의 역(1398) 소금 요시미즈의 책봉(1401), 정화의 원정(1405-33), 이종무의 대마도 원정(1419) 계해약조(1443), 읍민정촌 창제(1446), 돌무질의 난(1448-9)
16C			무로마치 (室町) 시대	호닌의 난(1467-77)과 전국시대 시작 경국대전 반포(1485), 무오사화(1498) 전국 (戰國) 시대 갑자사화(1504), 유록·유철의 난(1510-2), 삼포의 난(1510), 기포사화(1519) 백문동서원 창립(1543) 오다 노부나가와 교토 입성과 전국시대의 종말(1568)
17C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장계정의 개혁시작(1572), 무로마치 막부 멸망(1573), 동인·서인의 분열(1575) 노부나가 암살(1582),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통일(1590), 임진왜란(1592), 정유재란(1597)
18C	청(淸)	조선(朝鮮)	에도(江戸) 시대	서키가하라 전투(1600), 에도 막부 수립(1603), 복인의 광해군 주대(1608), 기유조약(1609), 오사카 전투(1614-5), 호국 건국(1616) 인조반정과 서인 북세(1623), 돌림당의 대한압(1625-6), 정묘호란(1627), 일본의 쇄국체제 완성(1639) 호국의 국호변경(『정』)(1636), 병자호란(1636), 이차성의 『대순』 건국과 명의 멸망(1644) 남명 정권 멸망(1661), 『태평성대』(1661-1795), 삼번의 난(1673-81), 여승농정(1674) 네르킨스크 조약(1689) 교포개혁(1710) 영조 즉위와 향약책(1724)
19C			메이지	간세이개혁(1790) 순조 즉위와 세도정치 시작(1800), 신유사촌(1801), 흥경래의 난(1811) 기해사촌(1839), 연포개혁(1840), 페리제독의 일본내항(1853) 진주민란(1862), 고종 즉위와 대원군 집권(1863), 병인양요(1866), 메이지유신(1868), 신미양요와 대원군의 서원철폐(1871)

## 1. 임진·정유, 두 차례의 「왜란」

### · 정의와 명칭 문제

: 1592~1598년까지 두 차례 벌어진 일본군의 조선 침공

: 이런 명칭은 일본(왜)의 침공이 임진(壬辰)년, 정유(丁酉)년에 벌어졌기 때문이며, 「재란」(再亂)은 다시 벌어진 「왜란」이란 의미. 정유재란까지 포함하여 임진왜란이라 칭하기도 함

: 일본에서는 이를 「분로쿠(文祿)·케이초(慶長)의 역」이라 부르고, 중국에서는 「만력(萬曆)조선의 역」이라 하는데, 모두 전쟁 발발 당시 자국의 연호를 딴 것이다. 「역」(役)은 전쟁·전투란 의미

: 최근 한중일 삼국의 역사학계에서는, 각기 자국중심적 명칭의 사용을 지양하고 용어의 통일을 지향할 목적으로, 「임진전쟁」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아직 대중적으로 수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 1. 임진·정유, 두 차례의 「왜란」

### • 히데요시가 조선침공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①친족의 연이은 사망(1591)에 따른 분풀이설...에도시대 초기 일본의 서민들 사이에 회자됨(근거X) ②공명심설(호전설/정복욕설)...침공은 히데요시의 개인적 욕심 탓이란 설명으로, 에도 막부 초기의 입장이기도 함(이에야스⇔히데요시)

③혼란의 외부 전가설...일본내의 정국혼란을 외부에 전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설. 즉, 히데요시의 지배체제 안정을 위해 지방 실력자(=다이묘)들의 자원을 해외원정으로 소비시킬 심산이었다는 설명. 다만 이는 원정군의 대다수가 히데요시에게 적대적인 다이묘(ex. 이에야스)가 아니라 그와 가까운 이들이었다는 점에서 난점

④영토확장설...히데요시가 통일의 대상이라 보던 「천하」가 일본국내가 아니라 해외까지 포함된다는 설 ⑤감함무역설(통상무역설)...명·조선이 일본과의 무역을 금했다고 보아 이를 재개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는 설. 이는 임진왜란의 책임이 명과 조선에도 있다는 설로 현재 설득력X. 그리고 히데요시에게 무역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볼 근거도 박약

## 1. 임진·정유, 두 차례의 「왜란」

### • 히데요시가 조선침공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계속)

⑥ 중앙집권체제 수립설(=무기한적 전시체제설)...전국시대까지 일반적이던 다이묘·무사들의 자립성을 억압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지배질서체제를 확립할 수단으로서 전시체제를 선포하고 대외전쟁을 벌였다는 설

⑦ 동아시아 신질서설...일본통일을 실현한 자신감에서, 히데요시가 기존의 중국중심적 동아시아 교역체계를 일본중심으로 재편할 생각이었다는 설

⑧ 크리스찬 다이묘 배척설...당시 일본에서 선교 중이던 예수회 선교사들의 설로, 기독교인 다이묘·무사들의 용맹을 두려워하던 히데요시가 이들을 원정에 파견, 전사시킬 생각이었다는 설. 근거X

⑨ 여몽연합군의 일본침입에 대한 보복설...학문적으로는 근거X. 그러나 대중적으로는 당시부터 현재까지 신봉자들이 존재

## 1. 임진·정유, 두 차례의 「왜란」

### • 히데요시가 조선침공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계속)

⑩조선속국설...신화시대 진구(神功)황후의 삼한정벌 이래 조선은 일본의 속국이었으니 정벌이 당연하다는 설. 에도 시대 시중에서 유행한 설로 학문적 근거는 X

⑪스페인 위협설...스페인이 명과 조선을 복속시킨 뒤, 이들을 움직여 일본에 침공하려 했기에, 히데요시가 선수를 쳤다는 설. 몽골의 일본침공과 유사한 논리이나 학문적 근거는 X

→이상의 제 설 중 학문적으로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은, ③④⑥⑦정도. 유일한 정답은 현재까지 존재X

### • 히데요시의 일본통일에서 임진왜란 발발까지

: 상세는 인터넷 상의 「한민족대백과사전」·「두산백과」 등 작성자의 책임소재가 분명한 사전의 해당 항목을 참조할 것

## 1. 임진·정유, 두 차례의 「왜란」

### • 히데요시의 일본통일에서 임진왜란 발발까지 (계속)

: 조선의 당시 상황...선조 즉위 이전부터 쇠퇴기미. 연산군~명종 대의 4대 사화(士禍)로 인한 중앙정계 혼란. 사림 득세 이후의 당쟁. 군사적으로도 조선 초에 설립된 국방체제가 붕괴. 그 대안이던 비변사(備邊司)도 제 기능X. 율곡 이이는 「십만양병설」 주장으로 상황의 타개를 노렸으나, 빈약한 국가재정과 문약 풍조로 실현되지 X.

: 일본의 당시 상황...오랜 전국시대의 종식. 그동안 전국다이묘들이 생존을 위해 개선시켜 온 군사/정치/경제제도들이 일본 사회에 도입. 유럽 대항해시대 개막으로 일본을 찾은 스페인/포르투갈 등의 상인들이 다양한 신문물 전달

: 히데요시가 1586년 조선국왕의 일본천황 알현을 요구하여, 거절시는 출병할 것이라 주위에 이야기함. 츠시마 소(宗) 일족은 이를 막고자 절충안 모색→히데요시가 일본의 「新國王」이 되었으므로 축하사절 통신사 파견을 요청한다는 형식

## 1. 임진·정유, 두 차례의 「왜란」

### • 히데요시의 일본통일에서 임진왜란 발발까지 (계속)

: 조선은 이를 거부(反유교적 정권교체+오만한 태도). 1589년 히데요시의 재촉을 받은 소 일족이 재차 통신사 파견을 요청. 그러나 조선은 일전에 왜구에 가담했던 조선인이 츠시마로 도주한 사실을 들어 다시 거부. 소 일족이 이에 관련자를 처벌(가짜). 거부명분이 사라진 조선이 결국 통신사 파견을 결정하고, 일본의 실정과 히데요시의 저의를 탐지하기로 결론내림.

: 조선 통신사 일행이 1590년 3월 서울출발→츠시마에서 1달 체류→7월말 교토 도착→11월 히데요시를 만나 국왕의 국서 전달. 이 때 소 일족과 그 인척인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공모하여 이 통신사 일행을 복속사절이라 히데요시에게 거짓 설명. 따라서 히데요시는 무례한 행동으로 일관했고 통신사 일행은 항의→답서를 받지 않은 채로 교토를 떠나 귀국선에 오르기 직전 히데요시의 답서를 받음



## 1. 임진·정유, 두 차례의 「왜란」

### • 히데요시의 일본통일에서 임진왜란 발발까지 (계속)

: 답서의 내용... ①히데요시는 태양의 아들로 제왕에 합당한 인물  
②명을 쳐서 일본의 풍속/문화를 중국에 심을 것 ③조선국왕은 스스로 복속해 왔으니 통치를 보장 ④ 그 조건으로 「征明嚮導」(이후 「假道入明」으로 수정), 즉 조선이 일본의 명 원정의 길안내를 할 것

: 답서를 읽은 통신사가 분개하여 귀국을 서두른 결과, 1591년 3월 서울 도착. 이후 국론분열. 서인에 속한 정사 황윤길은 전쟁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반면 동인 부사 김성일은 정사의 주장에 반대. 문제는 사절단의 현상파악 결과보다 동/서인의 정쟁에 입각한 판단이 내려진 점.

: 결국 김성일의 주장으로 조정의 대응이 결정(실권자인 좌의정 유성룡이 같은 동인). 전쟁 발발을 겁낸 츠시마는 히데요시가 반드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니 그의 요구를 수용하고 전쟁을 면하라고 조언

: 결국 츠시마의 사절은 히데요시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조선국왕의 답서를 들고 귀국. 츠시마는 재차 사절을 보내(6월) 재고할 것을 요구했으나 다시 거절당함. 이후 양국간의 교류가 두절. 왜관의 일본인들도 철수. 사태를 수상히 여긴 조선조정이 뒤늦게 병비를 점검하기 시작

## 1. 임진·정유, 두 차례의 「왜란」

### • 히데요시의 일본통일에서 임진왜란 발발까지 (계속)

: 반면 히데요시는 1591년 1월부터 명 원정준비를 시작. 각지의 다이묘들에게 자가부담으로 전쟁준비를 명령(→봉건제). 8월 명 원정을 재차 다이묘들에게 선언. 12월부터는 내정을 인척에게 넘기고 침공준비에 전념. 또한 규슈에 거성을 짓고는 전진 기지로 삼음. 이처럼 히데요시의 전쟁 준비가 빠르게 진척되자, 조선이 스스로 복속했다고 거짓 보고한 소 일족과 고니시 유키나가의 입장이 난처해짐.

: 이들은 1592년 1월 조선의 사정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간 끌기에 나서지만, 결국 고니시가 조선이 「변심」했다고 히데요시에게 보고하고, 미숙한 처리를 속죄하는 차원에서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 그 결과 명 침공군이 조선 침공군으로 바뀜

: 1592년 4월 히데요시의 일본군이 조선을 침공(→임진왜란의 시작)

## 1. 임진·정유, 두 차례의 「왜란」

### · 임진왜란의 시작과 이후의 전개

: 주로 서일본 다이묘의 병력이 출병에 동원된 반면, 동일본 다이묘들의 병력은 규슈에서 예비병력으로 대기. 대략적으로 이들 예비병력이 10만, 그리고 원정군이 16만 정도(비전투원 포함). 당시 일본의 경제력으로 볼 때, 동원가능한 최대병력은 약 50만(→so 임진왜란에 동원된 병력수는 총병력의 절반 정도)

: 1592년 4월12일 선발대인 고니시 유키나가(+츠시마군) 휘하 병력이 부산에 상륙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됨.

: 전황에 대한 상세는 전술한 「두산백과」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수록된 내용 등을 각자 참조할 것

: 부산을 함락시킨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으로 진군. 신병기 조종의 위력과 긴 전국시대로 전쟁에 익숙했던 덕분에 서전은 일본군의 일방적 우세로 전개. 1달 만인 5월에 수도 한양, 6월에 평양이 함락. 선조는 한양 함락 직전 의주로 도망. 병력 모집을 위해 함경도에 파견된 임해군·순화군 두 왕자는 모병에 어려움을 겪다가 일본군의 포로로 잡혔고, 피난길에 오른 선조는 백성의 냉대에 직면

## 1. 임진·정유, 두 차례의 「왜란」

### · 임진왜란의 시작과 이후의 전개 (계속)

: 하지만 일본군은 이후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과 의병의 저항, 명의 원군에 의해 보급로를 차단 당하고 불리한 전황에 놓임. 일본군은 1593년 4월 한양을 버리고 남부지방에 집결하여 버티었고 전선은 교착化. 이후 조선이 배제된 채 일본과 명 사이에 강화교섭 시작. 히데요시는 명 항복과 조선 남부의 할양을, 명 조정은 히데요시의 일본국왕 책봉과 조공허용을 강화조건으로 내세움. 회담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함

### · 정유재란의 시작과 이후의 전개

: 명과 일본 사이의 강화교섭 결과, 히데요시는 명이 항복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반대로 명의 조정은 일본이 항복한다는 보고를 받음. 이런 모순적 상황은 명·일본 양쪽의 교섭 담당자들이 강화를 신속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자국의 중앙권력자에게 거짓 보고를 했기 때문임(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당초 양국 권력자의 요구가 서로 너무 달랐기 때문에 타협이 안됨)

## 1. 임진·정유, 두 차례의 「왜란」

### • 정유재란의 시작과 이후의 전개 (계속)

: 결국 일본의 교섭 담당자는 히데요시의 거짓 항복문서를 작성, 화평 조건은 「감함무역의 재개」뿐이라고 명 측에게 전달. 「히데요시의 항복」을 확인한 명은, 일본을 중국의 책봉체제 하에는 넣어주지만 감함무역은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 히데요시에게 일본국왕이란 칭호와 금인(金印)을 전달할 목적으로 일본에 사절단 파견

: 1596년 9월, 명 사절단이 히데요시를 만남. 자신의 요구가 완벽히 무시되었음을 알게 된 히데요시가 격노, 사절을 내쫓고 재출병을 결정. 참고로 명 사절단의 대표였던 심유경(沈惟敬) 역시 중국으로 돌아온 후 회담결렬과 거짓보고의 책임을 물어 처형됨

: 그 결과, 1597년 함께 14만의 일본군이 다시 조선을 침공(=정유재란). 이순신이 당쟁으로 투옥당한 상태에서, 그 대신 삼도수군통제사가 된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일본수군에 대패. 하지만 전쟁초반부터 명 원균이 참전한 점, 그리고 조선군도 나름 개선된 점, 그리고 일본군의 당초 전략(후술) 등의 이유로 전황은 예전만큼 일본에게 유리하지 않음. 9월 일본군은 다시 남부지역에서 축성한 뒤 지구전에 돌입함

## 1. 임진 · 정유, 두 차례의 「왜란」

### · 정유재란의 시작과 이후의 전개 (계속)

: 이후로는 명 · 조선군의 공세와 일본군의 방어가 남부지방에서 반복 됨. 히데요시는 정유재란을 시작하면서 당분간은 전쟁보다 한반도 남부에서의 축성 등 교두보 확보와 방어태세 증강에 진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99년에 대대적 공격을 개시할 계획이었던 듯 함. 문제는 그가 1598년 8월 병으로 급사한 것

: 히데요시의 급사로 일본의 정국은 요동치게 됨(=권력재편). 출병중이던 다이묘들은 이제 전투가 문제가 아니라, 권력재편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철수해야 했음. 그 결과 명과의 강화를 서두르게 됨. 명군의 지휘부 역시 신속히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까닭에 명 조정의 지시도 없이 무단으로 일본측의 제안을 수용(+전쟁지속을 요구하던 조선의 의향도 무시). 명군 지휘부는 이렇게 교섭을 끝내버리고는 일본군 철수를 방관함. 그 결과 1598년 11월의 노량해전을 끝으로 대부분의 일본군이 무사히 철수.

: 하지만 전쟁상태는 지속되는데, 이는 명군이 계속 주둔하였고, 조선과 일본 사이의 강화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 명군의 완전철수는 1600년, 조선과 일본의 강화는 1609년에 이루어짐

# 1. 임진 · 정유, 두 차례의 「왜란」: 참고도판



## 1. 임진·정유, 두 차례의 「왜란」

### · 에도 막부의 성립과 국교회복

: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01년 전쟁포로 250명을 송환하면서 조선에게 강화를 요청해 옴(중개임무는 츠시마번). 조선은 이 강화요청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전쟁 중 왕릉을 훼손한 이들의 송환을 조건으로 제시함. 츠시마 소 일족은 양국을 오가면서 쇼군의 국서를 조선이 만족하게끔 위조하거나 가짜 범인을 송환하는 등 국교회복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음.

: 조정은 이를 의심했지만, 실추된 권위 회복을 위해 전쟁을 승리로 포장하려던 선조는 그 가짜 범인을 진범이라 하여 공개 처형함. 한편 조선은 일본국내의 상황을 탐색하기 위해, 1604년 사절단을 츠시마에 파견했는데, 이에야스는 이를 듣고 사절을 교토로 불러 직접 회담함. 사절단은 그가 일본의 실권을 장악했으며 화평의 뜻이 있음을 확인한 뒤 이에야스의 국서를 들고 귀국함



## 1. 임진·정유, 두 차례의 「왜란」

### · 에도 막부의 성립과 국교회복 (계속)

: 이후 1607년 1월, 조선은 이에야스의 국서에 대한 답서 전달과 전쟁포로 송환을 위해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를 파견. 그리고 1609년에는 새로이 즉위한 광해군이 츠시마 번의 간청을 받아들여 부산에 왜관을 설치하고 교역을 재개함(기유약조: 외교관계와 무역의 정상화). 이로써 임진왜란 발발 이후 18년 만에 조선과 일본은 강화를 맺게 되며, 츠시마는 양국으로부터 외교/무역상의 특권을 인정 받음. 다만 이후 츠시마번이 양국의 국교수립을 서두르고자, 막부의 국서와 이에 대한 조선 측의 답서를 각기 상대방을 만족시키게끔 위조한 것이 발각되어 처벌 받음. 이후 무역은 막부가 전담함

## 1. 임진·정유, 두 차례의 「왜란」

### • 두 차례의 「왜란」이 한중일 삼국에 미친 영향

#### ① 조선

: 연산군 이래의 사회문란이 왜란을 계기로 완전 붕괴. 경제파탄과 관료부패 심화. 인명과 토지 손실이 막대(+명군에 의한 약탈). 신분상의 제약이 해이해짐. 문화재 손실. 명의 원군 파견으로 송명사상 고조(→인조반정의 이유). 일본에 대한 재인식과 적개심 고조(→반일감정의 기원)

: 명군에 의해 관우 신앙이 유입(關羽廟). 항복한 일본군에 의해 화승총 기술이 전래. 남미가 원산지인 고추가 일본을 거쳐 이 시기 한반도에 전래. 국력약화로 곧이어 벌어진 두 차례의 「호란」(胡亂)에도 제대로 대응X

#### ② 명

: 대군파견으로 국력소모+국가재정문란. 이는 당시 황제 만력제의 개인적 사치와 맞물려 명을 약체화시킴. 만주족에게 세를 기울 절호의 기회를 제공(=명청교체의 원인)

## 1. 임진·정유, 두 차례의 「왜란」

### • 두 차례의 「왜란」이 한중일 삼국에 미친 영향 (계속)

#### ③일본

: 침공군의 주력이던 서일본의 히데요시 계열 다이묘들이 과도한 병역 부담으로 약화(→가신단의 내분/반란). 이는 참전을 거부하고 힘을 키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대두를 초래하여, 오히려 히데요시 정권의 기반을 위태롭게 함. 이후 히데요시파 다이묘 vs 이에야스파 다이묘 간의 정국 주도권 쟁탈전인 세키가하라 전투로 이어짐(1600)

: 전쟁비용이 다이묘의 자가부담이었던 탓에, 다이묘들이 그 부담을 다시 농민들에게 전가(→민란 속출)

: 조선인 포로에 의한 문화전래(esp. 도자와 조선 성리학). 일부 포로들은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메꿀 목적으로 일본 각지에서 사역되었으며, 노예로 해외에 팔려나간 이들도 있음

## 1. 임진·정유, 두 차례의 「왜란」

### • 두 차례의 「왜란」이 한중일 삼국에 미친 영향 (계속)

#### ③일본 (계속)

: 에도 막부는 당초 조선침략을 히데요시의 광기의 산물로 평가. but 시간이 흐르면서 통신사를 막부에 대한 조공사절로 선전하게 됨(조선 침략과 옛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전설이 그 원인이라 설명됨). 즉 에도 막부의 전쟁 사후처리를 단순한 평화/국교회복이 아니라 막부에 의한 조선의 재복속이라 해석.

: 이런 조선=조공국이란 에도시대의 평가는 19C에 들어와 「정한론」(征韓論)으로 발전. 정한론 이후에도 이런 평가는 지속되어 한국병합시의 일본 언론·군인들은 히데요시의 꿈이 달성되었다고 기뻐함

#### ④기타

: 히데요시는 조선 이외에 남방의 주변국들에게도 복속하지 않으면 정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냄. 명 원정계획이 구체화하자, 당시 명의 조공국이던 류큐왕국에도 가세를 요구. 류큐는 공적으로는 이를 거부했으나 뒤로는 보급에 협력. 동시에 사절을 명에 보내 히데요시의 침공계획을 알리기도 함.

## 2.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의 재개

### • 조선통신사의 정의와 그 전사(前史)

: 그 시작은 조선국왕이 1403년(태종3) 명의 책봉을 받고, 그 이듬해 무로마치 막부의 3대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滿)도 책봉을 받으면서, 한중일이 중국적 조공/책봉체제라는 외교 관계를 공유하면서부터이다.

: 한일 양국은 중국에 대해서 「사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조공국). but 양국 사이의 의례상의 상하관계는 불분명. 「교린」이란 용어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 but 이는 어디까지나 자국의 우위를 전제로 하는 용어. 양국의 최고권력자인 조선국왕과 막부 쇼군은 상호간에 사절을 파견하여 국교를 수립함과 동시에 자국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해 외교상 신경전을 벌임

: 이때 조선국왕이 쇼군(日本國王이라 표현)에게 보내는 사절을 통신사, 쇼군이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사절을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라 함. 일반적으로 통신사란 용어는 의례상 대등한 국가간에 신의(信義)를 통(通)하는 사절이란 의미

## 2.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의 재개

### • 조선통신사의 정의와 그 전사 (계속)

: 따라서 통신사는 무로마치 막부 시절부터 파견되었으며, 임진왜란 이전까지 양측 사절단은 매우 활발히 왕래함(조→일: 18회, 일→조: 71회). 하지만 당시 조선국왕의 사절이 모두 통신사로 불린 것은 아니었으며, 사절의 명칭은 회례사(回禮使) · 회례관(回禮官) · 보빙사(報聘使) · 경차관(敬差官) · 통신관(通信官) 등 일정치 않았고 목적과 편성도 다양했음.

: 통신사란 명칭 자체는 고려가 1375년 무로마치 막부에게 보낸 사절에 처음 사용되었다 하며, 조선시대에는 1413년(태종 13)에 파견될 사절단이 최초임(다만, 正使의 발병으로 중지). 따라서 1429년(세종 11) 교토[京都]에 파견된 사절단이 실질적으로 처음 (조선)통신사란 명칭을 사용한 사절단이 된다.

: 파견목적은 임진왜란 전에는 주로 왜구단속 요청이었으며, 임진왜란 직후에는 강화와 포로들의 송환, 일본국정 탐색이었다. 그리고 1636년(인조 14) 이후로는 새로운 쇼군의 습직(襲職)을 축하하는 것이 사실상 주된 임무가 되었다.

## 2.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의 재개

### • 조선통신사의 정의와 그 전사 (계속)

: 이러한 조선통신사는 기유약조 체결(1609)이전까지 8회, 그 이후에 12회(「회답겸쇄환사」3회 포함) 파견되었으며, 1811년을 마지막으로 소멸하게 된다(후술).

: 한편 에도 막부는 명과도 국교를 회복하기 위해 조선에 중재를 요청하고 복건성에서 직접 교섭하기도 했지만, 조선의 중재 거절과 명의 해금정책, 그리고 그 결과 발생한 일본의 불신감으로 실현되지 못함

: 결론적으로 볼 때, 조선국왕의 다양한 일본사절 중 「통신사」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진다. ① 조선 국왕이 일본 쇼군(일본국왕)에게 파견 ② 쇼군의 길흉(吉凶)에 대한 답례나 양국간의 현안 해결이 목적 ③ 조선국왕이 쇼군에게 보내는 국서(國書)와 예단(禮單)을 지참 ④ 사절단은 중앙의 고위관리인 삼사(三使) 이하로 편성

\*참고도판: 조선시대의 역대 통신사 정보(Naver 한국민족대백과사전 同항목 참조)

회차	파견년도		정사	인원		회차	파견년도		정사	인원
1	1413	태종 13	박분	미상		14	1655	효종 6	조형	485
2	1429	세종 11	박서생	미상		15	1682	숙종 8	윤지완	473
3	1439	세종 21	고득중	미상		16	1711	숙종 37	조택억	500
4	1443	세종 25	변효문	약 50		17	1719	숙종 45	홍치중	475
5	1460	세조 6	송처검	약 100		18	1748	영조 24	홍계희	477
6	1479	성종 10	이형원	미상		19	1764	영조 40	조미	477
7	1590	선조 23	황윤길	미상		20	1811	순조 11	김이교	328
8	1596	선조 29	황신	309						
9	1607	선조 40	여우길	504						
10	1617	광해군9	오윤겸	428						
11	1624	인조 2	정릉	460						
12	1636	인조 14	임계	478						
13	1643	인조 21	윤순지	477						



## 2.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의 재개

### • 조선통신사의 파견 이유에 관하여

: 전술한 대로, 통신사의 파견 이유는 임진왜란을 경계로 차이가 있다. 조선전기의 경우 왜구문제가 현안이였기 때문에, 조선은 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했다. 따라서 통신사 파견 이유는 왜구단속 요청과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신임 쇼군의 습직 축하 등 정치/외교적인 것이었다. 이는 같은 시기 일본이 보낸 일본국왕사가, 동(銅)을 생필품인 쌀·콩·목면과 교환하거나(경제적), 아니면 조선의 대장경과 범종을 가져가는 것이 주 목적이었던(문화적) 점과 크게 대조적이다.

: 한편 조선후기에도 조선통신사의 파견 이유는 여전히 정치/외교적인 것이었다. 왜란 직후 전쟁상태 종결을 위한 강화교섭, 포로송환과 국정탐색, 쇼군의 습직 축하 등이 주된 이유였다. 반면 이 시기 일본국왕사의 조선파견은 금지되었다. 이는 조선 전기 일본국왕사의 상경로가 왜란 당시 일본군의 침략로로 이용되는 등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조선이 일본국왕사의 상경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일본국왕사의 파견은 중단되고, 「차왜」(差倭: 츠시마의 사절)가 쇼군의 지령을 받아 외교사무를 전담하게 된다

## 2.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의 재개

### • 조선통신사의 파견 이유에 관하여 (계속)

: 한편 임진왜란 직후의 사절단(1607 · 1617 · 1624)에는 통신사가 아니라,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란 명칭이 붙었는데, 이는 왜란 이후 새로운 외교상대가 된 에도 막부의 쇼군과는 아직 「신의를 통할 수 있는」(=통신) 관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신사란 명칭은 1636년 사절부터 다시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왕조교체로 인한 중화적 세계질서의 일시적 동요라는 배경이 있다. 국제질서의 중심인 중국이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외교상의 동요를 막으려는 의도가 양국 권력자 사이에 공유되었을 것이라 보인다.

: 17C까지는 신임 쇼군 축하라는 표면적 이유 이외에도 해결할 외교적 현안들이 있었지만, 18C 이후 중국정세가 안정되자 통신사의 파견은 이제 의례수행만이 그 주된 목적으로 남는다. 19C가 되면 그 외교적인 의미까지 상실되는데, 즉 1811년의 마지막 통신사는 기존의 관례대신 츠시마에서 직접 국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간략화되는 것이다. 이후로도 쇼군 교체시에 사절파견이 결정되지만 시행되지는 못했다.

## 2.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의 재개

### • 조선통신사의 파견 이유에 관하여 (계속)

: 즉 양국은 더 이상 통신사 파견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19C 중반 이후, 서구열강이 동아시아를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조·일 양국은 통신사를 통한 외교관계 유지보다는 서로 상반된 대외 인식에 기초하여 서구세력에 대처하는 쪽에 주안을 두게 되었다. 이는 통신사로 상징되는 전통적인 외교관계 종말을 초래한다.

### • 조선통신사의 파견절차 및 행로

: 조선통신사의 파견절차는 이하와 같다. 먼저 일본에서 새로운 쇼군의 습직이 결정되면, 츠시마의 소 일족은 막부의 명령으로 사절을 조선에 보낸다. 조선 조정은 이에 대해, 중앙관리 3인 이하로 정사 이하 책임자들을 임명하고, 300~500명 규모의 사절단을 편성한다.

: 사절단은 한양을 출발, 육로로 부산까지 이동한 뒤, 부산에서부터는 츠시마 사절의 안내 하에 해로를 이용하여 대마도→시모노세키(下關)→오사카(大阪)로 이동한다. 그리고 육로를 통해 교토로 이동한다. 조선 전기인 무로마치 시대에는 이곳에 쇼군이 있었기 때문에 교토가 종점이었지만, 조선 후기인 에도시대에는 쇼군이 도쿄(東京)에 있었기 때문에 목적지가 도쿄가 되었다.

## 2.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의 재개

### • 조선통신사의 파견절차 및 행로 (계속)

: 사절단은 한양을 출발, 육로로 부산까지 이동한 뒤, 부산에서부터는 츠시마 사절의 안내 하에 해로를 이용하여 츠시마→시모노세키(下關)→오사카(大阪)로 이동한다. 그리고 육로를 통해 교토로 이동한다. 조선 전기인 무로마치 시대에는 이곳에 쇼군이 있었기 때문에 교토가 목적지였지만, 조선 후기인 에도시대에는 쇼군이 에도(현 도쿄)에 있었기 때문에 목적지가 에도가 되었다.

: 한양에서 부산까지는 2개월 정도가 걸렸으며, 중간기착지에서는 향연이 마련되었다(충주·안동·경주·부산 4곳→비용문제로 이후 부산 한곳으로 간략화). 일행은 부산에 도착한 뒤 해신제(海神祭)를 지내고 일본으로 출발했다. 츠시마에서는 소 일족의 접대를 받았고, 이후 오사카에 상륙하여 에도에 이르기까지 머무는 곳마다 지방 권력자들이 주최하는 향응을 받았다. 이 향응에서 일본의 유학자·문인들과의 필담을 통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

: 통신사에 대한 호화스런 접대는 막부재정을 축내는 한 원인이 되었고, 따라서 1711년 에도 막부는 통신사 접대를 간소화하도록 명령을 내렸지만, 1719년 다시 예전대로 복구되었다.

## 2.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의 재개

### • 조선통신사의 파견절차 및 행로 (계속)

: 통신사에 대한 호화스런 접대는 막부재정을 축내는 한 원인이 되었고, 따라서 1711년 에도 막부는 통신사 접대를 간소화하도록 명령을 내렸지만, 1719년 다시 예전대로 복구되었다.

: 에도에 머무는 동안 통신사 일행들은 초대 쇼군 이에야스의 묘소(日光東照宮) 참배를 강요 받기도 했다(1636 · 1643 · 1655). 또한 1636년에는 막부의 요청으로 곡마단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 인기가 높았던 덕분에 1680년부터는 마상재(馬上才)로 향례화되었다. 막부가 길일을 택하여 쇼군 알현을 허락하면, 사절단은 국서 등을 전달하였다. 이후 쇼군의 답서 및 사절단에게 답례품이 증정되었다. 그러면 일행은 다시 츠시마 측의 수행원들과 함께 귀로에 오른다. 돌아가는 길에도 올 때와 마찬가지로 향응이 반복되었음은 물론이다.

: 이런 통신사의 일본 왕복은 대체로 6개월~1년 정도를 요했다 하며, 통신사 일행은 머무는 곳마다 서화 · 시문을 남겼고, 일본 화가들 역시 통신사의 화려한 행렬을 병풍이나 두루마리 그림 · 판화 등으로 후대에 남겼다. 통신사 일행은 귀국 후 일본에서의 경험을 기록으로 다수 남겼는데, 이를 통해 당시 양국 간의 외교 및 문화교류의 실상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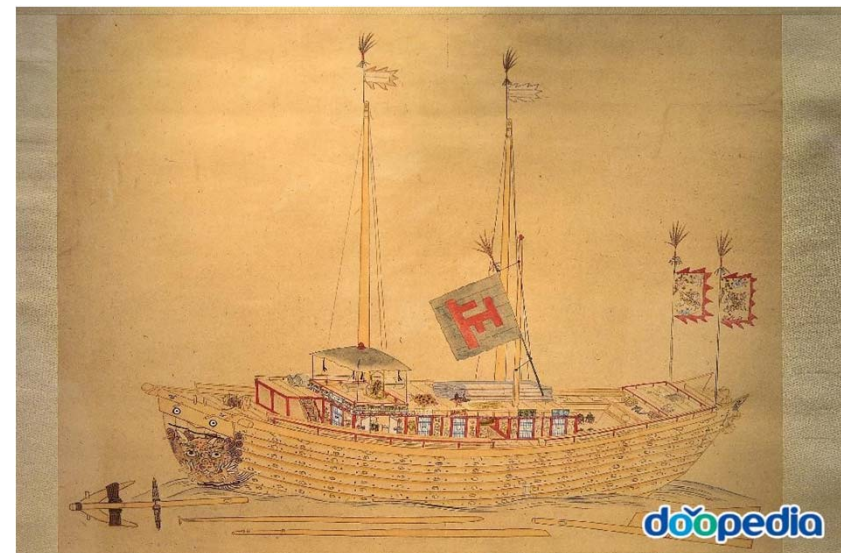
## 2.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의 재개: 참고도판

### 조선통신사의 행로

통신사의 행로



정사(正使)가 탑승한 배 그림  
(두산백과)





## 2.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의 재개: 참고도판

에도를 지나는 통신사 행렬  
(羽川藤永『朝鮮通信使來朝圖』)



일본화가가 그린 통신사 일행  
(狩野安信『朝鮮通信使』1655年作)



## 2.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의 재개: 참고도판

### 일본 지방축제 속에서의 통신사행렬 (「家康行列」 愛知縣岡崎市)



### 한국 지방축제 속에서의 통신사행렬 (부산시)





### 3. 과제

Q. 두 문제 중 하나를 택하여 A4 1면 정도의 분량으로 답하시오.

: 두 차례의 「왜란」과 이후 국교회복을 거쳐 조선통신사가 재개되는 과정은 여러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가령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본 교재에서는 많이 할애했지만 중국적 세계질서 속에서 서로 우위를 점하려는 양국의 각축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하며, 그 극한에 전쟁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양국 지도자의 이런 욕망과는 별개로, 양국 사이에 낀 츠시마의 지배자 소(宗) 일족은 자신들만의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양국 지배자들을 속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은 국가만을 기준으로 역사를 볼 때에는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조선시대 이후의 츠시마의 외교 활동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감상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 활동의 일관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목적은 어떤 배경에서 추구된 것인지에 중점을 맞추어 작성해주면 될 것이다. (계속)

### 3. 과제

Q. 두 문제 중 하나를 택하여 A4 1면 정도의 분량으로 답하시오.

: 다음으로, 경제나 문화적 측면에서 보자면 통신사의 활동은 아름다운 미담으로 가득한 듯 보이게 된다. 특히 현재의 입장에서 관광수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양국의 지자체는 특히 이런 식의 내러티브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통신사의 문화적 측면이나 혹은 현재적 의의에 관심이 있는 경우, 이하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고 감상을 작성해주면 되겠다.

: 「조선의 문화 · 외교 사절단」(YTN사이언스, 49분)

: <https://www.youtube.com/watch?v=Xwf2GGPuZa4>

: 이상의 두 과제 중 택일하여 과제를 수행하면 됩니다.